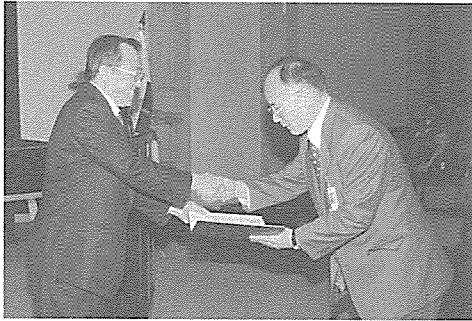


제1회 송곡과학기술상 시상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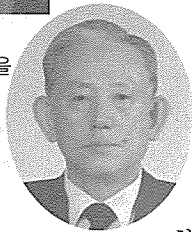
최형섭 박사의 연구기금 기탁으로 제정, KIST 서상희 박사 수상



▲ 시상식에서 박원훈 KIST 원장이 서상희 박사에게 시상하고 있다. (왼에는 연구기금을 기탁한 송곡 최형섭 박사)

“훌륭한 연구업적을 낸 사람들을 격려하는 데 이 상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곡과학기술상(이하 송곡상)에 담긴 송곡(松谷) 최형섭박사의 마음이다.

지난 2월10일 서울 홍릉 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박원훈·KIST) 존슨강당에서는 제 1회 송곡과학기술상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송곡상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초대 수상자는 서상희 박사(KIST 정보재료·소자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서박사는 ‘적외선 열영상 센서용 화합물반도체(HgCdTd)의 제조 공정 개발’에 대한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곡상은 세계적인 수준의 신소재 개발(금속재료, 무기재료, 유기재료,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성과를 이룩하였거나 과학기술 및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국내 과학기술인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최형섭 박사(전 과학기술처장관)가 KIST에 기탁한 연구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송곡상 운영위원회는 신소재개발과 과학



기술정책·관리의 2개 부문에 대해 KIST 창립 기념일(2월10일)에 격년제로 1명씩 교체 선정하여 시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곡상의 수상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후 운영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부상으로 2천 만원을 지급받는다.

최형섭박사가 기탁한 기금은 지난 94년 5·16민족상 과학기술부문, 97년 공학기술대상 연구개발 및 과학기술정책부문과 일본 닛케이 아시아 국제대상 기술개발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받은 세차례의 상금이다. 재료공학을 전공한 최박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의 전신) 초대 소장을 역임하면서 해외 한국인 과학기술자의 대규모 국내 유치를 성공으로 이끈 주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7년 6개월의 최장기 장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정책가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과학기술은 뒤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를 낙관하게 해주는 변수로 주목받고 있으나,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에 대한 국내 포상제도는 아직 걸음마단계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과학기술은 모방 단계를 넘어 세계 제일을 목표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질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함께

이룩했다. 1945년 한반도 전체 학사이상 이공계통 인력이 모두 90여명, 박사가 2명에 불과했던데 비하면 현재 이공계통 총 연구원 수는 약 14만명(박사 4만명)으로 추정되며, 인구비례 연구원수는 프랑스나 영국보다 앞선다. 논문발표(SCI) 순위도 92년 30위에서 97년 17위까지 향상되었고 연간 GNP대비 3% 정도의 기술개발비를 쓰는 나라는 중진국 중에는 없고 영국보다도 나은 수준이다.

국내 포상제도로는 과학기술부가 시행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한국과학상, 한국공학상, 젊은과학자상 외에 민간 차원에서 제정한 호암재단의 호암상, 금호재단의 생명과학상 등이 있으나, 그 다양성과 포상의 훈격과 보상수준에 있어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초대 송곡상 수상자 서상희박사는 순수 국내 기술로 고급 특수강 제조기술을 개발, 우리나라 발전설비의 제작기술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류에 따르지 않고 한 분야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온 것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맺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더 나은 일을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박사는 평소 최형섭박사를 존경해 왔으며 송곡상의 첫번째 수상자가 된 것에 감사한다고 소박하게 소감을 밝혔다. 서박사는 서울대 금속공학과와 한국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를 거쳐 82년에 미국 Northwestern대학에서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에 KIST에 입소한 후, 지난 84년부터 15년동안 적외선 센서에 관한 연구의 외길을 걸어왔다. ①7